宗敎學科 敎育의 특성과 당면 과제

吉 熙 星
(西江大 宗敎學科)

1. 宗敎學의 性格과 使命

한국에 있어서의 宗敎學科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살펴 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선 요청되는 것은 宗敎學의 性格과 使命에 대한 간략한 省察이다. 왜냐하면 종교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理解없이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宗敎學科 敎育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필자는 어느 대학의 총장을 만났을 때 그 분으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종교인은 많지만 종교학자는 많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실로 타당한 말이라 생각되었고 우리나라의 대학 총장들이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정도만이라도 종교학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해도 한국에서의 종교학은 前途가 밝을 것이라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일찌기 근대 종교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막스 뮬러(Max Müller, 18~19세기)는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의 폭 넓은 比較硏究를 促求한 바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事物에 대한 우리의 모든 認識은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비교라는 知的 行爲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宗敎現象의 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종교학이란 무엇보다도 우선 이와 같은 종교의 폭 넓은 비교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언제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학문이다. 우리는 막스 뮬러의 말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만을 아는 자의 無知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지에 근거한 獨斷과 偏狹性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강한 신념과 집단적 결속력을 지닌 종교의 영역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宗敎多元(religious plurality)化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특히 한국과 같이 佛敎, 그리스도교, 儒敎, 여러 民族自生宗敎 등 다양한 종교적 집단들이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사회에서—에 있어서 종교학의 중요성은 단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종교들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지닌 폭 넓은 비교 연구란 近代社會로 들어오면서, 특히 19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학문적 발전이었다. 그 이전의 종교 연구란 응당 연구자 자신이 믿고 따르며 속했던 종교 전통만을 연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른바 '信仰的' 태도에 입각한 종교 연구였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종교 연구는 神學(넓은 의미에서)이지 宗敎學은 아닌 것이다. 종교학은 근세 啓蒙思想과 더불어 인간의 사유가 한 특정한 宗敎 傳統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온 인류의 다양한 종교 생

활과 역사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게 된 사실에 힘입어 발전된 학문이다. 더군다나 근세 市民社會의 형성과 더불어 宗敎의 自由가 주어짐에 따라 인간의 종교적 소속성은 더 이상 단순히 자기가 태어난 文化的 傳統과 慣習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선택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종교 외에 他人과 他民族들의 종교 전통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 이상의 일이 되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국제간의 정치·경제적 상호 협력과 의존 관계는 물론이오 사업가들과 학자들, 여행자들, 선교사들, 운동 선수들의 교류 등으로 인하여 他民族들의 종교 이해는 實生活上의 비근한 문제들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종교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립되고 발전해 온 것이며, 앞으로도 인류가 開放社會를 지향하는 한 끊일없이 진행될 학문 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학의 중요성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어느 문화권을 보나 종교는 그 문화의 지배적인 世界觀 및 價値觀, 道德과 法律, 文學과 哲學, 言語 그리고 각종 藝術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류가 쌓아온 문화 유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종교의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다. 종교학은 따라서 人文學과 社會科學의 영역에서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종교학이 종래의 神學(넓은 의미에서 信者가 자기 종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학문)과는 달리 종교에 대한 開放的이고도 客觀的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산출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즉 학문과 신앙의 괴리라는 현상이다. 근대의 宗敎 自由가 어느 종교를 믿든 개인의 자유 의사와 선택에 의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無宗敎와 無信仰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듯이, 종교학이라는 학문 또한 信仰을 前提로 하지 않는 종교 연구의 자유를 주었는가 하면 동시에 학문과 개인적 신앙이 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종교학은 종래의 神學的 宗敎硏究로부터 몇 가지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최근의 종교학은 이러한 비판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첫째로 종교라는 것은 본질상 인간의 가장 깊은 내적 세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종교학자들이 객관적 학문 태도로 他人의 信仰世界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은 종교학으로 하여금 그 학문적 활동에 있어서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를 지니도록 한다. 종교학자들은 그들이 다루고 고찰하는 대상이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믿음의 세계임을 기억하여 종교 현상을 대함에 있어서 경박한 태도나 너무나 단순한 說明方式을 지양하여 종교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人間的 깊이의 次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학은 이러한 면에서 문학과도 같이 인간의 심오한 내면적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일종의 人間學인 것이다.

둘째로 객관적 학문성을 주장하는 종교학이 과연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價値中立的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대 종교학은 그것이 지닌 근본 前提와 硏究方法에 있어서 근대의 世俗的 合理主義의 종속하에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다루고자 하는 종교 전통에 대하여 또 하나의 偏見에 빠질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학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宗敎的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닌 지의 물음이다. 이러한 물음은 실로 종교학에 하나의 警鐘을 울려주는 것으로서 宗敎學者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미 宗敎學 안에서도 宗敎的 現象을 종교적 현상이 아닌 다른 어떤 현상으로서 —예컨대 어떤 社會的 혹은 非正常的인 心理的 현상— 보려는 還元主義的 接近 方式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듯이, 종교학은 자칫 잘못하면 전통적 종교 대신에 각종 현대의 세속적 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종교학은 과거의 종교적 독단에서 오는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큰 역할 못지 않게 자칫하면 현대의 얄팍한 합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편견에 동조하기도 쉽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종교학자들이 종교 전통들을 종교학적 관점에서 다루다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종교도 믿지 못하는 相對主義와 懷疑主義 내지 無宗敎, 無信仰의 상태로 빠지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필자가 종교학을 가르쳐 오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 종교학과 교육이 반드시 종교교육이 아니듯이 무신론 교육이나 종교적 회의주의를 양성하는 교육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숙한 종교학은 끊임없는 엄격한 自己省察과 批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교학의 근본적 성격과 사명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한국 대학에 있어서의 종교연구와 宗敎學科 교육의 현황을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2. 韓國 宗敎學科의 現況

한국 대학에서의 종교 연구와 교육은 두 가지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교단이나 종단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神學大學 및 宗立大學들에 소속되어 있는 神學科, 佛敎學科, 儒學科, 宗敎敎育科, 敎役者 養成을 위한 학과들, 혹은 宗敎哲學科 등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宗敎學科들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서울大와 西江大의 경우뿐이며, 그것도 西江大의 경우는 서울大와는 달리 역시 카톨릭의 예수회에서 창립한 학교인 만큼 宗敎學科라 할지라도 神學科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우선 前者의 경우를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神學科, 佛敎學科 등 宗立大學에 속한 부류의 학과들은 또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오로지 자기 교단의 宗敎와 神學만을 연구하고 가르치거나 혹시 宗敎學 科目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불과 한두 개 정도로 그치는 부류의 학과와, 다른 하나는 교단의 神學이나 宗敎 연구를 주로 하되 宗敎學 科目을 體系는 없지만 몇 개 내지 상당수 갖추고 있는 학과들이다. 前者의 경우는 아무리 그 학과들의 교단적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 宗敎學에 대한 이해를 전적으로 결여한 時代錯誤的인 교육현상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겠다. 이것은 世界的인 추세에도 거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宗敎多元化 社會를 맞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은 교육 현상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종교학 과목들이 상당수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專攻學者들을 學科 내에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外部 講師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자연히 그 과목의 교육은 소홀하거나 不實하게 되며 심지어는 學科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形式的 敎科目 정도에 머무르기도 한다.

한편 종단이나 교파의 배경을 지니고 설립된 학과들과는 판이한 성격을 지닌 본격적인 宗敎學科들이 있다. 서울大와 西江大의 경우가 그러하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서울大 宗敎學科의 경우가 보다 더 典型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大 종교학과는 어느 한 특정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世界宗敎史의 과목들을 고르게 개설하고 있으며 宗敎史的 자료들을 보다 體系的으로 연구하는 宗敎現象學, 宗敎社會學, 宗敎心理學 등도 강의하고 있다. 종교학의 기본 과목들을 대체로 균형 있게 개설하고 있다. 다만 각 宗敎 傳統들의 敎理와 思想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經典硏究의 과목들이 거의 全無함이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서울大 종교학과의 경우만이 아니고 한국 종교학계 일반의 문제인 바—개설된 모든 과목들을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專門學者들을 학과내에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專任敎授가 단 4명밖에 없으므로 자연히 많은 과목들은 외부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좀 지나친 견해일지는 모르나 국내의 宗敎學界를 총망라해도 몇몇 중요한 과목들—예컨대 이슬람교史, 아프리카 종교—을 담당할 수 있는, 종교학적으로 훈련된 敎授陣을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국 종교학계가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얘기이며, 세계적인 대학을 지향한다는 서울大의 경우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도 큰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西江大 宗敎學科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여서 개설된 과목들은 종교학의 제반 분야에 따라 체계를 갖추었으나 專

門學者는 2명뿐이며 역시 외부 강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울大와는 달리 西江大는 카톨릭의 예수회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종교학과 역시 서울大와는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聖書學과 카톨릭 神學에 관계된 과목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이 종교학, 聖書學, 神學을 큰 갈등 없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종교 연구에 있어서 종교학적 방법과 신학적 방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서강大 종교학과의 경우도 하나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학대학이나 종단 설립 대학들이 따르기에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宗立 대학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특정한 종교나 종파의 신학을 무시하고 종교학만을 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립대학이나 종단과는 무관한 일반 대학의 종교학과가 앞으로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그리고 마땅히 생겨야 하겠지만—그 모델은 서울大 종교학과의 체제여야 할 것이다. 宗教多元化 社會에 발맞추어 어느 특정 종교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한국과 세계의 종교 전통들을 균형 있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길은 宗教學的 方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3. 앞을 향한 몇 가지 提案

이상에서 고찰한 종교학의 성격과 의의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에 있어서의 종교학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한국의 종교학과 교육이 지향해 나아갈 방향으로 지적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로 인류의 역사, 문화, 사회의 연구에 있어서 종교의 이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물론이요, 종교다원적인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상호 이해와 관용을 위하여도 국립대학 내의 종교학과의 新設 및 補强 그리고 각 宗立大學 내에서의 宗教學 科目들의 개설 및 증설은 시급한 時代的 要請이다.

둘째로 宗立學校가 아닌 國立大學이나 혹은 一般大學들에 新設되어야 할 宗教學科는 서울大 종교학과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학과의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教養課程의 一部로서라도 宗教學科의 과목들은 개설되어야 한다. 반면에 神學大學이나 宗立大學들의 경우에는 '宗教學科'라는 명칭을 사용하든 안 하든 西江大 宗教學科의 체제에 준하여 神學과 宗教學을 병행하여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세째로 宗教學의 教科課程은 큰 손색 없이 갖추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전문학자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서울大와 서강大 종교학과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종교학 제반 분야의 專門學者들의 養成은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이슬람교와 아프리카 종교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네째로 종교학계의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우리 말로 된 종교학 서적과 연구 문헌들의 부족이 심각하며, 이것은 자연히 宗教學科 教育의 不實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비교적 단시일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책임 있는 번역의 지원에 있다고 하겠다. *